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최근 기업대출시장 동향

국내 공유주방 산업 동향 및 전망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최근 기업대출시장 동향 | 1 |
| 국내 공유주방 산업 동향 및 전망 | 3 |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국제금융시장 | 6 |
|--------------|---|

금융시장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금리 · 환율 · 주가 | 10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
최근 기업대출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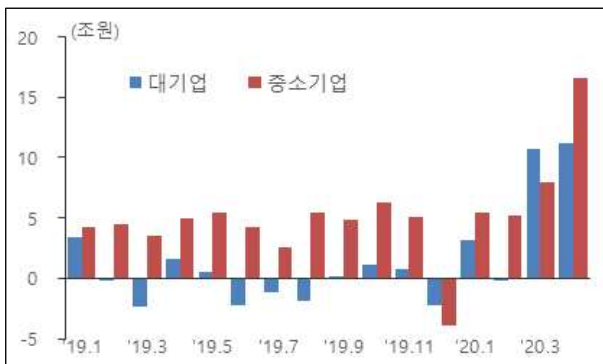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기업대출 증감액은 3월과 4월중 각각 18.7조원, 27.9조원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규모
 -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, 회사채와 CP 상환자금 마련 등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정책성 자금 지원에 기인
- ◆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은 상존하나, 실물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은 중요
 - 아직 기업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, 경기침체 장기화시 부실 증가 가능성 상존
 - 기업들의 대출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중개 기능 필요

□ '20년 1~4월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은 전년동기대비 40.5조원 확대된 60.2조원 기록

- 월별로는 3월과 4월 기업대출 증감액이 각각 18.7조원, 27.9조원으로 두 달 연속 한국은행의 속보 발표('09.6월) 이후 최대 규모
 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운전자금 수요 증가
 - 특히,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, 정책금융기관의 중소·중견기업 자금 지원,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* 한도 확대 등 대규모의 정책성 자금 지원에 기인
 - 실물피해대책 31.7조원,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 등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중
- *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(舊, 총액한도대출)

월별 기업대출 증감액 추이



주 : 대출잔액 증감액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국내은행의 대출태도·신용위험·대출수요 추이

| 구분 | 2019년 | | | | 2020년 | |
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1Q | 2Q | 3Q | 4Q | 1Q | 2Q ^e |
| 대출 태도 | 대 | 0 | 0 | 10 | -3 | 0 |
| | 중소 | 17 | 23 | 27 | 3 | 23 |
| 신용 위험 | 대 | 7 | 7 | 10 | 10 | 23 |
| | 중소 | 27 | 27 | 33 | 20 | 17 |
| 대출 수요 | 대 | -3 | 3 | -3 | -7 | -7 |
| | 중소 | 13 | 23 | 17 | 37 | 33 |

주 : '20년 2분기는 전망치
자료 : 한국은행

- 대기기업의 경우 1~4월중 대출 증감액은 24.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.5조원 확대
 - 대기기업은 만기도래 회사채와 CP 상환자금 마련,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대출 시장 진입,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등 대출수요 증가
 - 1~4월 일반회사채 발행실적(전년동기비): 전체 16.7조원(△8.6%), A등급 2.4조원(△47.5%)
 - 대기기업 대출수요지수(전망)가 2분기중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채권시장안정펀드(20조원) 가동(4월), 회사채·CP 매입기구(10조원) 설립 등으로 대기기업의 대출 증가세는 완화 전망
- 1~4월중 중소기업대출 증감액은 35.3조원으로 전년동기(17.3조원)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 가운데 개인사업자 비중이 큰폭 상승
 - 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 지원 영향으로 동기간 개인사업자 비중은 52.1%로 전년동기(43.9%)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, 4월 기준으로는 65.1% 기록
 - 2분기 신용위험지수(전망)는 중소기업은 실물경기 부진으로 '0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, 정책성 금융지원으로 대출태도는 완화 기조

□ 기업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,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이 중요할 전망

- 향후 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,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충분
 - 현재 금융 지원으로 기업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시 기업 부실 증가 가능성 상존
 -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은 '20년 3월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*은 안정적이며,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1분기 수익성**도 양호
 - * 연체율('19.3월→12월→'20.3월, %): (기업대출) 0.59→0.45→0.49, (대) 0.74→0.50→0.35, (중소) 0.56→0.44→0.53
 - ** 순이익 2.6조원(전년동기대비 +0.1조원), ROE 8.08%(△0.33%p), ROA 0.58%(△0.04%p)
 - 예수금 확보 노력으로 '20년 4월말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*은 96.1%로 전년말(98.0%)대비 개선되었으며, 예대율 규제 완화**로 자금공급 여력도 증가
 - * 예대율 = 원화대출금(가계대출*1.15 + 개인사업자대출*1 + 법인대출*0.85) / 원화예수금 ≤ 100%
 - ** '21.6월까지 예대율 규제 완화(100%→105%) 및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(1→0.85%)
- 당분간 기업들의 대출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필요한 상황
 - 은행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자금공급을 크게 축소하면 기업들의 신용경색 유발 등 경기하강 가속화 우려
 - 다만,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위기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

국내 공유주방 산업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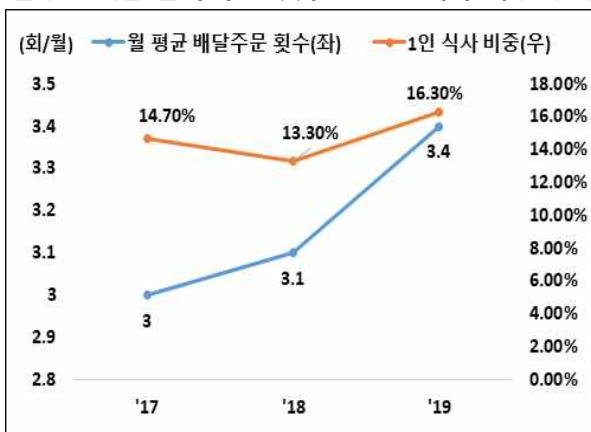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강준희 (jokeroov@kdb.co.kr)

- ◆ 국내 공유주방 산업은 소비자의 외식소비 트렌드 변화와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 중
- ◆ 공유주방은 단순 공간대여 서비스를 넘어 음식료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, 최근 법률 개정안 발표 등 제도 지원으로 공유주방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

□ '혼밥'의 일상화, 간편식 선호 등 외식문화의 변화와 발달된 배달 인프라로 인해 국내 공유주방 산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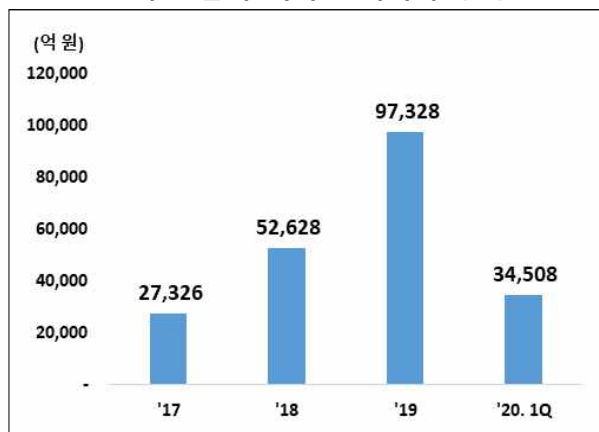
- 공유주방은 다수의 사업자가 별도의 매장을 두지 않고 식품을 조리·제조하여 배달 또는 납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일종의 외식업 공유 오피스를 의미
-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'혼밥'의 일상화 등 외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공유주방 시장 규모도 확대
 - '19년 기준, 1인당 월평균 배달 음식 주문 횟수는 약 3.4회이며, 전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금액은 약 9조 7천억 원 규모로 '17년 대비 3배 이상 성장
 -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, 별도의 매장 없이 배달 채널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

월평균 배달 음식 주문 횟수 및 1인 식사 비중 추이



주 : 1인 식사 비중은 1인당 전체 외식소비 금액 대비 비율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'19.12)

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 추이



자료 : 통계청('20.5)

□ 높은 비용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유주방은 단순 공간 대여 서비스를 넘어 음식료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 중

- 공유주방은 높은 비용 절감효과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
 - 공유주방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 비중이 작아 일반 음식점 대비 약 20% 수준의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
 - 업종 변경 또는 사업실패 시에도 매물 비용이 적게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린 스타트업*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함
- * Lean Startup,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며 시장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경영전략
- 공유주방 업체는 최근 단순한 주방 대여 서비스에서 벗어나 외식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친 인큐베이터의 역할까지 수행
 - 주요 업체들은 IT 기술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당 상권의 수요분석, 배달 동선 최적화, 통합주문 및 배달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
 - 식자재 구매 대행, 메뉴 개발 교육 등 공유주방 내 입주 업체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 중
 - 과거 축적된 수요 및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외식업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

공유주방의 유형 분류

| 기준 | 분류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업 형태 |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(배달중심) |
| | 식품제조·가공업(생산 및 판매) |
| 제공 서비스 | 장소만 대여 |
| | 공간대여 + 별도서비스 |
| 판매 형태 | B2C (일반소비자에게만 판매) |
| | B2B (유통업체, 음식점 등 사업자 대상) |




주 : B2B 판매의 경우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
 자료 :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('19.8)

국내 운영 중인 공유주방 형태



자료 : 고스트키친

국내 공유주방 주요 업체 현황

| 업체명 | 특징 |
|---|---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최초로 공유주방 사업 도입('15년) - '20년 3월 기준, 총 222억 원 투자 유치 - 배달형(신사점, 논현점 등) 및 제조형(사직점, 송파점) 공유주방 운영 - '20년 6월, 배달서비스 '위콧 딜리버리' 론칭 예정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9년 '배달의민족' 출신 최정이 대표가 설립 - '19년 9월 기준, 총 124억 원 투자 유치 - 자체 통합 주문처리 시스템, '발가락' 개발 - 강남역, 삼성점 등 서울 5개 배달형 공유주방 내 42개 업체 입점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ber 창립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창업, '19년 5월 한국 진출 - '19년 6월, 국내 공유주방 스타트업 '심플키친' 인수 -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 및 통합 주문관리 시스템 제공 - '아웃백스테이크', '잭슨피자' 등 기존 오프라인 유명 브랜드 유치 |

주 : '위콧'의 제조형 공유주방은 '19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로 선정되어 한시적으로 허용
 자료 :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

□ 공유주방 관련 법률 개정안 발표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공유주방 산업의 성장은 향후 지속될 전망

- '20년 예정된 식품위생법 개정 및 공유시설운영업·이용업 신설 등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공유주방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
 - '20년 5월 21일, 정부는 공유주방 전면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
- 특히,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료 주문 및 배달 서비스가 기성세대들에게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공유주방 시장 규모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식품위생법 개정 후 배달형 공유주방뿐만 아니라 가정간편식 및 식료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형 공유주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공유주방 관련 규제 개선사항 세부내용

| 구분 | B2B 판매 가능 여부 | 영업 환경 |
|----|--|--|
| 현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공유주방의 경우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 일반 최종 소비자(B2C)에게만 판매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 영업소에서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공동사용이 불가 - 공유주방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용도의 시설이 분리, 구획되어 있어야 함 |
|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유시설운영업 및 공유시설이용업 신설을 통해 유통업체 및 음식점(B2B) 대상 판매와 별도의 공간 분리, 구획 없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 · 공유시설운영업 :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하여 배달(판매)하기 위한 공유시설을 마련·임대하는 업종 · 공유시설이용업 : 공유시설운영업자로부터 주방시설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업종 | |

자료 : 정부24('20.5), "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·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보도자료" 재구성

국제금융시장 5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중순까지 강세를 보인 후 월말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약화로 약세 전환하였으나, 원/달러 환율은 미-중 갈등의 영향으로 상승
- ◆ **(금리, 주가)** 美 국채 수익률은 전월 대비 변동폭이 줄어든 보합세를 보인 반면, 주요국 증시는 美·中 갈등 고조 등에도 경제회복 기대로 전월의 반등세 지속

□ **(환율) 달러화 가치는 중순까지 미-중 긴장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월말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어 약세로 전환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-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상승**

- 달러 인덱스*는 중순까지 미-중 긴장,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선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, 월말 백신·치료제 및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 등 안전자산 선호 약화요인의 우세로 전월 대비 하락, 2개월래 최저치 마감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- 트럼프 대통령이 월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“강한 달러를 가져가기 좋은 때”라고 언급*, 이에 중순까지 달러화 강세압력 작용
 - *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'18년 이후 꾸준히 달러화 약세를 강조해왔으나, 4.17일 “강한 달러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”고 발언하며 강달러 선호로 선회
 - 이후 백신·치료제 개발 기대 및 봉쇄조치 완화, 유로화 반등의 영향으로 하락
- 엔화는 월초 미-중 긴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였으나, 중순 이후 치료제 개발 및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되며 약세 시현
- 유로화는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 이견* 등으로 중순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월말 유럽 경제회복기금 조성 계획** 등의 영향으로 반등
 - 27일 달러/유로 환율은 2개월만에 1.1달러/유로선을 회복
 - * 5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PSPP에 대하여 일부 위헌으로 판결하였으며,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
 - ** 18일 독일과 프랑스는 전향적으로 5천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창설 및 피해국에 대한 무상 지원을 EU에 제안하기로 합의, 28일 EU집행위원회는 조성계획규모를 7,500억유로 확대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| | '18년말 | '19년말 | '20.4월말 | '20.5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달러 인덱스 | 96.140 | 96.479 | 99.013 | 98.264 | △0.76% |
| 엔/달러 | 109.61 | 108.66 | 107.18 | 107.80 | +0.58% |
| 달러/유로 | 1.1456 | 1.1219 | 1.0955 | 1.11025 | +1.35% |

주 :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이태원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일 까지 보합세를 보였으나, 이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-중 갈등, 한은의 경제 전망 하향조정(△0.2%, 28일)* 등의 영향으로 상승
 - * 한은이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
- 29일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환율(7.1316위안)*은 '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이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
 - * 중국 외환시장(역내)에서는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거래기준환율 ±2% 범위에서 위안화가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고시환율이 중국 정부의 정책 시그널로 인식하여 주시

원화 환율 추이

| | '18년말 | '19년말 | '20.4월말 | '20.5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원/달러 | 1,115.7 | 1,156.4 | 1,218.2 | 1,238.5 | +1.67% |
| 원/엔 | 1,017.9 | 1,064.2 | 1,136.7 | 1,1448.7 | +1.06% |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보다 소폭 오른 보합세

- 미-중 갈등,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, 경기 비관론 등 금리 하락요인과 증시회복, 경기개선 기대 등 상승요인의 균형 위에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0.6~0.7%에서 보합세
 - 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 배제(11일) 등 하방제한으로 장기금리는 큰 폭의 등락 없음

□ (주가) 미-중 갈등 고조,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, 경제활동 재개 기대, 실업 증가 둔화 등 낙관적 요인으로 선진국 증시는 대체로 4월의 반등세를 계속

- 美 상원의 코로나19 책임 법안 발의(12일), 경제활동 재개 시기상조론(12일) 등으로 다우지수가 일시적으로 2만3천 초반대까지 후퇴(13일)하기도 하였으나, 미국·유럽·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5월 동안 4~8% 상승
 - 美 실업 증가 둔화와 정부 경제정책 대응 및 민간은행 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| | | '18년말 | '19년말 | '20.4월말 | '20.5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금리 (%) | 미국채 10y | 2.6842 | 1.9175 | 0.6393 | 0.6526 | 1.33bp |
| | 독일채 10y | 0.2420 | -0.1850 | -0.5860 | -0.4470 | 13.90bp |
| | 일본채 10y | 0.0030 | -0.0110 | -0.0300 | 0.0050 | 3.50bp |
| 주가 (pt) | 다우존스 | 23,327.46 | 28,538.44 | 24,345.72 | 25,383.11 | +4.26% |
| | 유로 Stoxx 50 | 3,001.42 | 3,745.15 | 2,927.93 | 3,050.20 | +4.18% |
| | Nikkei | 20,014.77 | 23,656.62 | 20,193.69 | 21,877.89 | +8.34% |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시장 6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에 대한 강세압력이 우세한 가운데, 미-중 갈등, 외국인 주식매도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
- ◆ **(금리, 주가)**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, 증시는 이제 코로나19보다는 미-중 관계 전개 양상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□ **(환율)** 미-중 갈등, 유로화 약세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달러화 강세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은 홍콩보안법 제정 및 위안화 약세 가능성, 수출 감소 및 외국인 주식매도 등에 따른 달러화 수급여건 악화 등 상승압력 예상

○ **달러화 : 강세**

- 전월말 하락폭,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-중 갈등, 유로화 약세가능성* 등을 감안할 때 강세압력이 우세할 전망
- * 달러 인덱스 내 유로화 비중이 약 58%에 달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로 연결되며, 전월 나타난 유로화 가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홍콩보안법에 대응하여 5.29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특별대우 폐지, 중국대학원생 비자 제한 계획 등을 발표, 미-중 무역협상 관련 내용은 없었으나 미국의 대중압박 수위가 높아질 우려 상존
- 다만, 경제활동 재개 기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는 강세폭 다소 제한 가능

○ **엔화 : 보합**

- 당분간 경기 요인보다는 안전자산 선호심리의 영향이 더 클 것을 예상
- 홍콩 이슈,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요인과 약화요인이 상존하여 엔/달러 환율은 등락을 반복할 전망

○ **유로화 : 약세**

- 전월말 상승에 대한 기술적 조정, 공동대응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불일치, 유로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약세압력 우세
- 유럽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27개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나, 스웨덴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덴마크 4개국은 무상지원에 대하여 반대입장 견지
- 5월말 유럽의 Economic Surprise Index*($\Delta 276$)는 미국($\Delta 55$) 실적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유로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지속

*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실제 발표된 수치와의 괴리를 수치화한 지표로, 경제 지표 실제치가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플러스[+], 못 미칠 경우 마이너스[-]로 표시

○ 원/달러 환율 : 추가 상승 우려

- 달러화 수급불안은 다소 진정*되었으나 수출 감소**,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-중 갈등 격화,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용인 등에 따른 상승압력 예상

* 2~3월 감소하였던 외환보유액은 4월 증가세로 전환(3월 4,002억달러 → 4월 4,040억달러)

** 4월 적자를 기록하였던 무역수지는 5월 흑자로 전환하였으나(△9.5억달러 → 4.4억달러), 수출은 감소세 지속(△25.1% → △23.7%)

- 다만, 당국에서 경기 및 외환수급과 관련이 없는 환율의 일방향 쏠림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어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

□ (금리, 주가) 장기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, 증시에서는 미-중 갈등 전개 여하에 따라 회복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

○ 금리 : 장기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

- 미-중 갈등 전개 여하, 코로나 재확산 여부, 백신·치료제 개발 전망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월의 진정된 변동성을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 존재

○ 주가 : 미-중 긴장관계 향배가 중요

-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과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-중 갈등 관련 시장 시그널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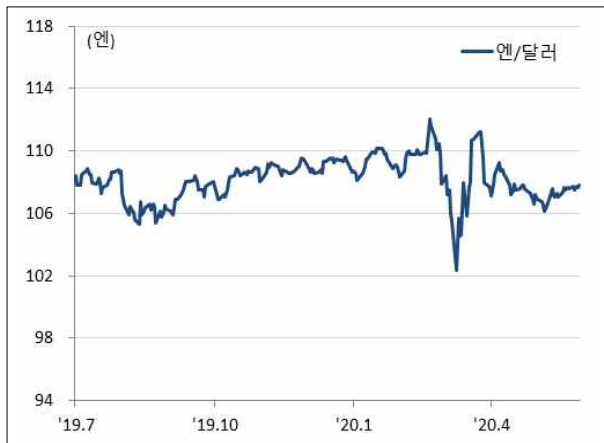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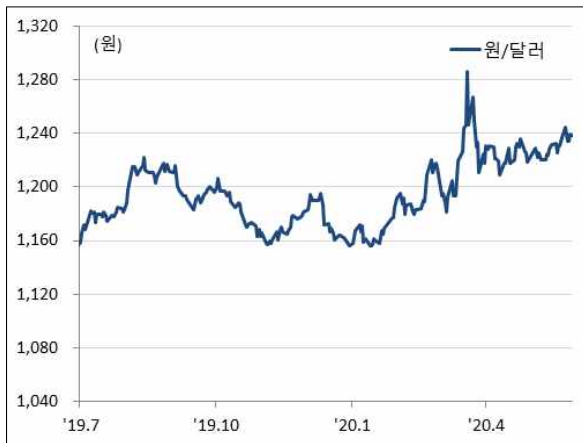
(담당자 : 환율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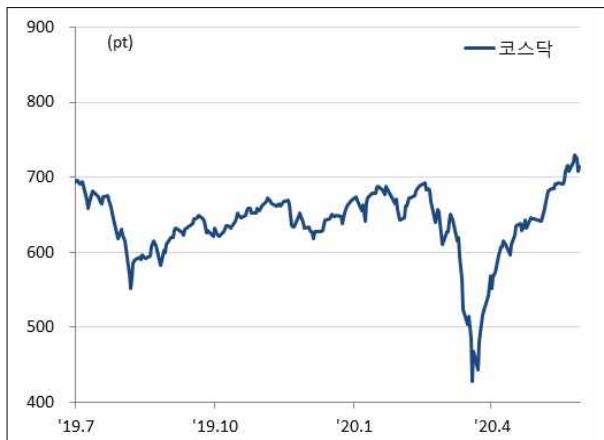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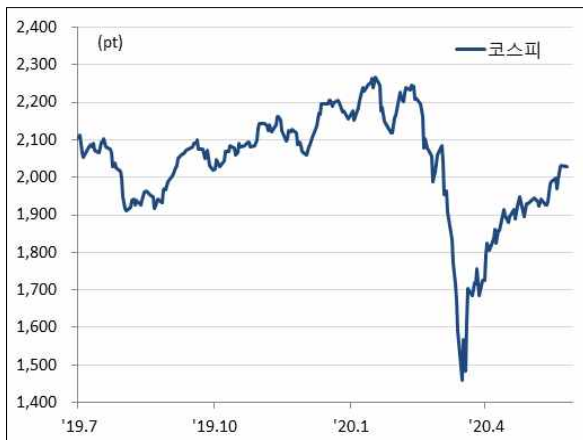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0.826% (1.1bp ↓), 신용스프레드 76.1bp (0.4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238.5원 (1.5원 ↑), 엔/달러 107.8엔 (0.19엔 ↑)



주 가 코스피 2,029.60pt (3.02% ↑), 코스닥지수 713.68pt (0.72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80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